

## 재보선 투표율 40% 초반 예상

오늘까지 선거운동

전국 38곳에서 치러지는 4·27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6일 자정으로 마감되면서 13일간의 치열했던 재보궐 선거전이 막을 내린다. 하지만,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화순군수 재선거를 비롯한 강원도지사, 경기도 성남 분당을, 김해 을 등은 아직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혼전을 펼치고 있어 선거당일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당과 선관위는 투표율을 제고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이런 가운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꼭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이 6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가 지난 17일 재보궐 지역 10곳(강원도는 춘천·원주·강릉권으로 나눔)에 거주하는 유권자 8811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적극 투표층은 평균 64.1%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40%대 초반의 투표율을 예상했다. 선관위 측은 “실제 투표율은 여기서 20%포인트 정도를 낮춰 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다른 재보선(보통 38~39%) 때보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 40% 초반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

# 7천억 대형사업 현대 독식 안된다

지역경제 “U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설 지역업체 참여 길 터줘야”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조성에 지역기업들이 참여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비가 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업은 최근 5년 사이 광주에서 발주된 민간공사 중 최대규모이지만, 국내 1위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이 독자적으로 선수촌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지역업체들은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와 화정주공아파트 재

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19만4492㎡에 24·33·39·45평 등 3727세대를 짓는 재건축사업의 건물철거 및 신축 비용은 7023억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발주된 민간사업 중 최고액으로 지역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아파트 건설사업이 사실상 중지상태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 건설업체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광주 재건축은 지난 2008년 북구 운암동 벽산아파트, 재개발은 지난 2007년 동구 계림동 두산 위브를 끝으로 신규 물량이 없어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현대건설에서 지난 14일 재건축조합에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정삼도(54)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조합에 요구한 곳은 없다”며 “현대건설이 제안서를 내놓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분명한 지역업체들이 있다면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 청산 가구가 발생하면 총 수의 10%는 건설사가, 나머지 90%는 광주시가 부담하고 일반 분양도 미분양 물량의 10%까지 광주시도시공사가 인수하기로 하는 등 지역주민의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건설경제를 위해 현대건설과 재건축조합 측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표 (민주당, 남구1)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광주U대회 선수촌 건설공사 시 광주시가 업체에 혜택을 준 만큼 지역건설업체에 일정지분을 주어 공동도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신수의 사무처장은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이라는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를 수도권 대기업이 독식하면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 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해야 불황에 허덕이는 지역 하도급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사업비의 역외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건설업체 수는 종합 190개사, 전문 1397개사 등 모두 1587개사로 전국대비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수주액은 종합건설업 1조2500억원, 전문건설업 2조여원으로 전국대비 1.2%의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동지를 틀게 될 우정사업정보센터 신청사 기공식이 25일 나주시 산포면 공동혁신도시 내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 임성훈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첫 삽’

우정사업정보센터 기공식...2만7699㎡ 4층 규모 하반기 완공

우정사업정보센터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착공하면서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25일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정보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15개(개발 이전하는 해양경찰청 제외) 이전 기관 중 처음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중에는 17번째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우편과 금융

업무 등 우정사업에 대한 정보화시스템 개발과 유지관리, 전국 우체국 전산장비 설치 등 우정사업의 IT네트워크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부지면적 4만9544㎡, 연면적 2만7699㎡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임직원 816명도 내년말까지 옮긴다. 공사비는 총 188억원이 투입되며, 에너지 효율 1등급, 친환경 건축물 그린 1등급 인증을 받아 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이전하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집행해 지역 내 정보통신 사

업 발전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중경 장관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 이어 연내 한국전력공사, 한전 KDN, 한전KPS, 전력거래소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착공할 예정”이라며 “15개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우정사업정보센터를 비롯, 올해 말까지 청사 신축대상 127개 기관 중 총 80개 기관이 청사 신축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과학벨트 입지 내달 말 최종 확정

광주 3곳 전남 7곳 등 전국 후보지 53곳

국회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부지가 5월 말 최종 확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광주 3곳, 전남 7곳, 전북 5곳을 포함해 전국 39개 시·군 53곳의 후보지 중 입지평가위원회가 오는 28일 10곳 내외로 줄인 뒤 5월 중순에 5곳 내외로 압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지평가위원회가 5곳 이내 후보지를 제출하면 5월 말 30여 명으로 구성된 과학벨트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어 거점지구 및 기능

지구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 과학벨트기획단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비수도권 지자체(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면적이 165만㎡(약 50만 평) 이상인 지역을 후보지에 착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후보지가 전국 39개 시·군 53곳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곳이 후보지 조건을 충족했으나, 광주·부산·대구·대전 등 11개 지자체는 복수의 개발 가능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



캠퍼스 봄의 향연 25일 광주 북구 두암동 동강대학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형형색색으로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제11회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26일) 기념광고

꿈과 열정이 깎이다



## 창작의 고통까지 불법복제 하시겠습니까?

무심코 한 불법복제로

수많은 창작자들의 꿈과 열정이 깎이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을 존중하는 것,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창작자의 꿈을 키우고 문화를 가꾸는 일,

바로 저작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에서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